

불치(不治)의 기생충 질환들



■ 주 정 균

무서운 병에는 등급이 없다

일반적으로 감기는 병이 아니고 겨울철에 한 두 차례 콧물이나 훌리고 바튼기침이 나오는 것으로 생각하고 약방에서 감기약이나 사먹으면 쉽게 기침과 열이 내리고 콧물이 나오지 않으면 치유되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무섭지 않은 병이라고 믿고 병원에 갈 생각도 않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암종(자궁암, 위암) 위궤양 백혈병등은 중병이며 생명과 직결된 무서운 병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약방에서 약을 구하여 먹어도 잘치유되지 않으며 일시적으로 증세가 호전된 듯하다가 다시 악화되며 수술을 요하게되어 막대한 경비를 요하게 됨으로 간혹 가산을 탕진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죽을 병이 생겼다고 한다.

실제 진료도 용이하지 않으며 환자 자신도 신체상이상을 느끼지 못하고 지내다가 암종이 악화되어 출혈 등통 등의 심한 증세가 나타나면 병원을 찾게 된다. 이때는 병은 상당히 진전되어 확진되어도 치료 시기를 놓치고 있어 수술경과도 좋지못하고 다시 재발하는경향이 있다. 따라서 더 무서운 병이라고 한다. 그러나 생명을 위협하는 병에는 등급이 있는 것이 아니며 모두 무서운 것들이라고 생각해야 할 것이다.

현대 치료의학의 발달로 많은 생명이 사지에서 구출되며 옛날에는 약이 없어서 사망한 선조들에 비하면 천국과 같은 세상이라고 생각될지도 모른다. 무서운 암종과 같은 병에도 환자가 조기에 발견하여 병원을 방문 수술로서 암부위를 절제하든가 방사성능 치료를 실시하면 다소시기가 늦어도 병세의 진전을 일시 혹은 당분간 지연시킬 수 있다.

암종은 무서운 병이란점을 상기하면서 또 한가지 무서운 병을 가지고 생각해보기로 한다.

가장 골치거리는 간디스토마 전국에 5백만명, 약도 없고

우리국민의 대 부분이 무관심하게 지내보내는 것으로 기생충질환자들이 있다. 그중에서 우리국민은 물고기 생선회를 즐겨 먹는 관례로 악질 난치병인 간디스토마(clonorchis sinensis) 환자가 전국적으로 4~500만명이라고 통제가 나오고 있다. 이와같은

사실은 가공할만한 일이라고 생각된다.

우리국내에 산재하고 있는 한강, 낙동강, 섬진강, 영산강 및 금강유역의 주민층에는 생선회를 먹고 감염된 간디스토마 환자가 많다.

이들 환자상태를 보면 간장비대, 빈혈, 식욕부진, 피로를 호소하고 있다. 병세가 만성으로 경과하므로 환자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고질화된 병으로 된다. 이병에도 치료약은 없다. 간 조직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섬유화하여 간경변증으로 변한다.

간경변증은 간디스토마 환자말기증상에 속하게 되며 수술도 할수없고 방사능치로도 할 수 없다. 따라서 생명이 보장을 받을수 없다.

이 병에 걸리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물고기 생회를 먹지 않는 것 뿐이다. 생선은 익혀 먹든가 조림으로 하여 먹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생선 근육내에 잠재한 간디스토마의 애벌레를 끓임으로 불에 익힘으로 죽으면 감염을 방지 할수 있기 때문이다.

모기가 매개하는 사상충병 죽지는 않으나 보기 흉한 병

이밖에도 제주도와 호남지방, 영남지방에 만연하고 있는 사상충병에 대하여 말하고자 한다.

사상충은 모기가 우리에게 사상충벌레를 매개한다. 이 벌레는 심장 폐 동맥속 혹은 임파관속에 기생하는 것으로 임파의 흐름을 방해하여 임파관염을 야기시키며 이로 인하여 소위 "피내리" "피증"이란 증상을 나타낸다. 이병이 만성화되면 보기흉한 상

피병(象皮病)으로된다. 상피병은 외관상 흉하며 약제로는 치료할수 없으며 외과적으로 비대된 부분을 절제해야 하나 흉한 상처가 남게 되므로 더욱 보기 흉하게 된다.

또한 혈관이나 임파관내 기생하는 충체를 죽이는 약제가 없다.

팔다리가 굵어짐으로 보행작업에 지장을 받게된다. 그러나 생명에 큰 위협은 없다.

이 병을 예방하는 유일한 수단으로 는 여름에 꼭 모기장을 치고 잘 것이며 저녁에 신체를 모기에게 노출시키지 말아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무서운 기생충질환의 만연을 방지하며 구충작업을 철저히 하여 기생충 없는 복지국가로 되기위하여 국민 모두가 일치 협력하여 기생충 질환 박멸운동에 참가하기를 기원하며 빠른 시일에 복지국가로 군림하기를 기대하는 마음 간절하다.

<필자=경희의대 기생충학교수·의박>



누구 것일가